

# POLITICS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 전남도-EU 전략 동행...지속가능 미래 있다

### 박성현 전 광양항만공사 사장 내년 광양시장 선거 도전장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사진)이 내년 6월 실시되는 광양시장 선거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박 전 사장은 광양 출신으로 순천교와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에서 석사, 일본 규슈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미주리주립대학 연구교수,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광주전남지역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특히 박 전 사장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해양수산특별보좌관으로 활약했다.

박 전 사장은 "지역사회의 심부를 역할을 하기 위해 이번에 민주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자세한 것은 향후 적당한 기회에 소상한 정치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kjin@gwangnam.co.kr

### 광주·전남 연계 '선 넘는 여행' 릴스 챌린지·1박2일 팸투어 등

광주시가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와 전남을 잇는 이색적인 여행 콘텐츠 '선 넘는 여행'을 선보이는 등 지역 간 상생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시는 광주 중심의 홍보에서 한발 더 나아가 광주와 문화·산업과 전남의 자연자원을 연계한 1박 2일 코스를 시민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해 관광 홍보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선 넘는 여행'은 광주시 홍보종합플랫폼 '모두의광주' (news.gwangju.go.kr)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첫 영상은 광주 맨스플 '빛고을댄서스'의 리더 오현이 출연하는 예고편으로 시작해 4편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20일 공개한 1편 '감성여행 MZ투어, 열정 광주 VS 힐링 담양'은 엠제트(MZ)세대 대학생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광주와 담양을 여행한 뒤 이를 릴스 형식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시민참여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어 2편 '세대공감-손저투어', 3편 '여름휴가는 탄소저감여행', 4편 모두의 축제 등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사를 아우르는 콘텐츠가 이어질 예정이다.

광주시는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엠제트(MZ)세대 인플루언서 및 1인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테마형 팸투어도 추진한다. 7월 17~18일 1박 2일 일정으로 총 10명을 초청, 광주 도심에서 야구 특화 관광상품인 '야구광 트립'과 담양 죽녹원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또 전남 인접 시·군과 산업·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팸투어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광석 대변인은 "'선 넘는 여행'은 단순한 관광 홍보를 넘어 문화·산업·환경 등 다방면에서 광주와 전남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프로젝트"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팸투어를 통해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선 넘는 여행' 시리즈를 통해 광주와 전남의 매력을 동시에 알리고, 방문객에게 더욱 특별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해 광주 관광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김영록 지사, 주한 EU 대사단과 협력간담회 개최 산이정원·현대삼호중공업 등 산업·문화 현장 방문

전남도가 유럽연합(EU)과의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0일 목포에서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대사와 17개 회원국 주한 대사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경제·산업·관광·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스페인,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등 17개국 주한 대사들이 참석해 전남의 발전 가능성과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기후-에너지 전환 기조에 맞춰, 전남 역시 EU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유럽과의 미래 지향적

동행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남의 강점으로 △우주항공·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산업 △해상풍력·태양광·수소 기반 에너지 산업 △SAI 융합형 농수축산업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국제행사 연계를 통한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EU와의 구체적 협력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EU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국제사회의 모범"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이끄는 전남이 EU와 지속가능한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대사는 "전남은 청정 자연환경과 혁신적 에너지 기반을 갖춘 매력적인 지역"이라며 "EU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가치와 전남의 비전이 잘 맞아떨어 있는 만큼, 긴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0일 목포에서 열린 '주한 EU 대사단 간담회'에 참석, EU 대사단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주한 EU 대사단의 전남 방문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목포, 영암, 해남 등지를 돌며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

관, 산이정원, 현대삼호중공업, 목포 원도심 등을 방문해 전남의 산업과 문화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전남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EU 회원국과의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

하고, 국제도시 및 지역 간 협력사업 심 등을 방문해 전남의 산업과 문화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전남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EU 회원국과의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등 차관급 5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남중 차관에 대해서는 강 대변인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으로,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며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의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며 "지역



김남중 김민재 강형석 김성범 김광웅

### 행안차관 김민재·농림차관 강형석·해수차관 김성범

### 행안재난본부장 김광웅... 대통령실 "전문 관료 배치"

균형발전 어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형석 차관에 대해서는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웅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김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며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국민 호위무사' 박균택 의원 의정보고회

### 지역민과 함께 '축제' 같은 구성...향후 각오 등 다져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은 지난 21일 '국민의 호위무사 국회의원 박균택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박 의원의 첫 의정보고회는 비가 내리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산구민 1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졌다.

박 의원은 구민들에게 직접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며, 내란 정국의 장기화 속에서도 광산구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광주시 및 광산구와의 긴밀한 소통 및 협조에 힘입어 광산 발전과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감사사를 표했다.

이울러 박 의원의 제22대 국회의원선

거 공약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반영된 광주 공공화 이전, 광주역~송정역 철도 지하화, 광주 지하철도 2호선 4단계 구간 확대 등 광주와 광산의 주요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 진정된 민주정부의 탄생을 맞이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인 만큼 서로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자리였기를 바란다"며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그 뜻을 잊고 향성 성실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민생 회복과 광주 광산 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박균택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의 호위무사 국회의원 박균택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한편 이날 의정보고회는 이색 코너들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개그맨 서승만씨와 박지원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출연하는 토크쇼,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클래식모델쇼와 학생 맨스플 공연 등 축제를 연상케 하는 참신한 구성이 구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왔다는 호평을 받았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청년 삶·도전...맞춤형 지원 '눈길'

### 광주청년센터 개관 10주년...27일 시청서 행사 다채

광주청년센터(센터장 김태진)는 오는 27일 광주시청 1층 열린 문화공간에서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 국회의원, 시·구청 및 의회, 광주청년센터 협회, 광주청년센터



2025. 6. 27 (일) 16:00 - 17:00

및 지역의 청년단체 및 활동가 등 관계자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센터의 지난 10년 여정을 돌아보고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관계자들과 함께 향후 비전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 국회의원, 시·구청 및 의회, 광주청년센터 협회, 광주청년센터 등 중앙기관과 청년지원기관, 청년단체 및 활동가 등 관계자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센터의 지난 10년 여정을 돌아보고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관계자들과 함께 향후 비전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10주년 기념행사는 본 행사와 사전 토론회로 운영된다. 본 행사(오후 4시~5시)는 '청년과 함께한 10년, 그리고...'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는 광주청년센터의 지난 10년 을 되돌아보며 청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양

으로의 센터의 비전과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사전 토론회에는 '10년의 여정, 광주청년센터의 내일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시청과 청년재단, 광주연구원, 대구시청년센터 등 중앙

기관과 청년지원기관, 청년단체 및 활동가 등 관계자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센터의 지난 10년 여정을 돌아보고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관계자들과 함께 향후 비전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태진 광주청년센터장은 "이번 기념행사는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돌아보고, 함께해온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며 "광주청년센터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청년 및 관계자 분들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 신청은 구글 폼(https://forms.gle/drSVNxC4FBRcbyU48)을 통해 사전 접수 가능하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청년센터 경영지원실(062-232-1939, 내선 3번)에 문의하면 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광주시, 새정부 첫 민생추경 "적극 환영"

###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경제 회복 기대

광주시는 지난 2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에 대해 "벼랑 끝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확실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는 환영문을 통해 "지금과 같은 얼얼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번 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가 골목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재명 정부의 '비상경제대응 TF'에 발맞춰 '골목경제 상황실'을 지역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대책으로는 골목상권 주변 도로 야간주차 허용,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 시·공공기관-전통시장·골목상점가 간 1대 1 매칭 지원 등이 있다.

다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년(2023~2024) 동안 보통교부세 1759억 원이 미교부된 상황을 고려해 부담을 줄여주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안정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새정부의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의 동반자로 정부의 책임과 사명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